



북한 기도회

2023년 10월



기도제목 1.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90년대 이후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사용 등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며 에너지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월동준비 계절인 10월을 맞아 소외지역 취약계층의 북한 서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2. 민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이 아닌 외부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각 기관과 기업소, 가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의 경우, 양곡의 시장 판매를 제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로 일원화한 “신양곡정책” 조치로 인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을 제공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식량난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제, 국가 통제 강화,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등이 멈춰지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인권 개선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도된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정,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북한 억류된 사람들

사진출처: VOA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의2인	장문석 집사
2013년 10월 억류	2014년 10월 억류	2014년 12월 억류	탈북민 한국국적	중국 조선족



기도제목 5.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8월 말 외화벌이 일꾼 및 유학생 출신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 100여명이 강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외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 북송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대 2천 6백여명의 탈북자가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최근 강제 북송의 우려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두려움에 대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송 당하는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8월 29일, 중국 단둥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로 향한 북송버스 (사진=R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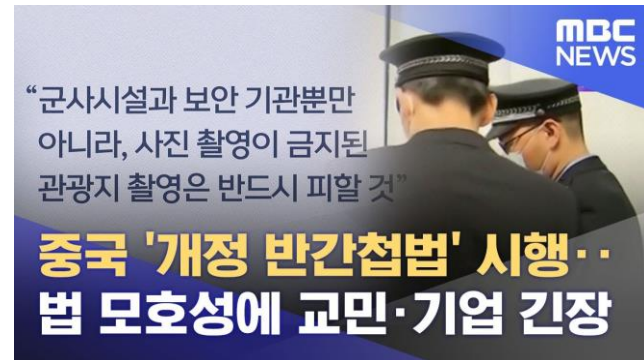


기도제목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중 항공편이 8월 22일부터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북중 여객 열차 운행도 포착되었습니다. 아직은 임시 운영의 성격이지만 머지않아 북-중간 인적왕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 운항도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곧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추방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선교활동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사역이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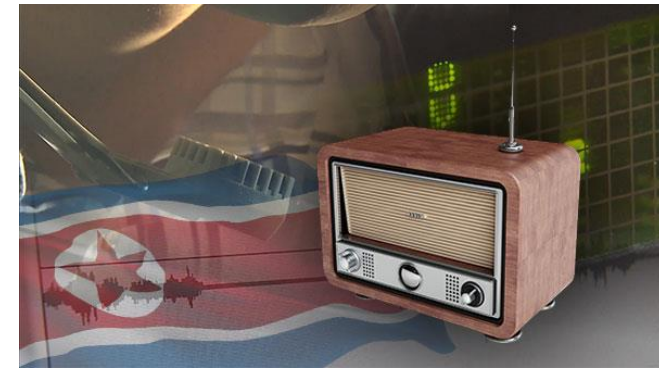


기도제목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TWR),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있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